

스무 살 된 전주세계소리축제 참신한 창작·예술 본위 축제 선언



- 1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포스터
- 2 다크니스 품바(안무 김재덕)
- 3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있다'
- 4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 5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공연 '전북청년음악열전'

전주세계소리축제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14개 시군에서 열린다. 공연 횟수는 40여 회에 달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더욱 새롭고 참신한 창작을 지향하고, 예술의 가치와 본질에 집중한 공연을 선보여 위축된 문화·예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축제에는 20주년을 맞아 지나온 길을 반추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띈다. 특히 소리축제의 근간을 이루 온 판소리를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재조명한다.

먼저 지난 10여 년간 소리축제의 대표적인 경쟁 프로그램으로, 이른바 한국형 월드뮤직팀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모색해 온 '소리프론티어'에 변화를 모색한다. 올해는 '소리프론티어 시즌2'라는 이름으로 판소리를 확장한 장르의 변화를 실험한다.

이를 위해 올 초 공모한 33개 작품 가운데 7개를 선별, 소리축제 멘토링을 통해 초연하거나 각색할 예정이다. '소리프론티어 시즌2'가 올해 축제의 슬로건인 '창작'과 '새로움'에 걸맞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도 높은 '진짜 산조'·'상쇠'...매혹적인 전통

올해는 실내공연 중심 축제로서 작품성을 갖춘 프로그램에 공을 들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메인 프로그램인 '광대의 노래'와 '산조의 밤'

은 조금 더 예술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광대의 노래'는 '사금(四金)이라는 이름으로 상쇠 명인들의 오리지널 쇠가락을 한자리에서 듣는 무대다. 농악단의 판놀음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각각의 리더들이 '상쇠'라는 묵직한 이름을 어떻게 지켜오고 열정을 쏟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임광식, 류명철, 유지화, 손영만 명인이 출연해 각기 다른 풍경 속 하나의 어우러짐, 대동의 판굿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산조의 밤'은 정통 산조의 깊은 맛을 내는 데 집중한다. '산조이나 산조 같지 않은 산조'라는 비평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진짜 산조'를 제시하기 위해 가야금 지순자, 강정숙 명인의 순도 높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바람처럼 깃드는 지순자 명인, 물처럼 흐르는 강정숙 명인의 연주는 가히 국금(國琴)들의 열전이라 불리며 벌써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현대무용단 합합(HIP합) 등 춤 예술의 정점을 본다'

격조 있는 몸짓, 열정적인 춤의 세계로 안내할 '국립현대무용단 합합(HIP합)과 '다크니스 품바' 가족공연 'SNAP meets Sori'(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는 올해 프로그램 중 가장 핫한 코드라고 할 수 있다. '국립현대무용단 합합'은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안무가들이 의기투합한다. 김보람, 김설진, 이경은 등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세 안무가의 역동적인 몸짓과 국악 바탕의 사운드 디자인이 관객들을 쾌감의 정점으로 이끈다. 8월 서울 초연에 이어 두

번째 무대로 소리축제를 택했다. 모던테이블의 '다크니스 품바'는 해외에서부터 인정받은 컨템포러리 작품이다. 한국인의 한(恨)을 전통소리 품바의 선율에 실어 한바탕 신명의 몸짓으로 재해석한다. 남성 무용수만으로 이뤄진 작품답게 역동적인 곡선미와 강렬한 움직임이 매력적이다. 한국 무용계의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 온 젊은 안무가 김재덕이 독창적인 표현방식으로 연출한 작품이다. 가족공연 'SNAP meets Sori'는 동화적인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미디어아트, 그림자놀이, 마임 등과 결합한 무한한 미술의 세계를 무대 위에 펼쳐놓는다. 소리축제와의 만남을 위해 특별히 국악과 소리 요소를 결합할 예정이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선우정아, 강허달림, 하림 등 독특한 보이스를 가진 매력적인 싱어송라이터들이 소리축제를 찾아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전북CBS 별빛콘서트, 정읍수제천보존회 등의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탱고와 아쟁의 만남, 로컬문화 결합...소리축제표 '새로움' 코드 눈길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날아온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은 올해 유일한 해외공연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기념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소리축제를 선택했다. 탱고 음악의 역사를 바꾼 혁명가 아스토르 피아졸라. 20여년간 피아졸라의 음악 세계를 잇는 유일한 앙상블로 인정받고 있는 연주팀이다. 소리축제에서는 특별히 아쟁 김영길 명인과의 합동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관객에게 신선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의 대미는 폐막공연 'Fever Time-전북청년열전'을 통해 마무리된다. 올해는 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합을 맞춰 제 목대로 '열정적인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좀 더 예술적이고 좀 더 창의적인 도전으로 여느 해보다 강렬한 인상을 안겨줄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더욱 새롭고 참신한 시도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한 이번 축제에 기대가 쏠린다. ●